

예수부활 대축일

기도서 278면 (C해)
 제1독서 : 사 도 10, 34a, 37-43
 제2독서 : 골 로 3, 1-4혹
 I 고린 5, 6b-8
 복 음 : 요 한 20, 1-9

숨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여
 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
 워져 있었다
 (요한 20, 1b).

□부활 메시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빛을!

교구장 박 정 일 주교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온누리에 새 싹이 움트는 새 봄과 함께 오늘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의 즐거운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깃들고 오래 오래 머물기를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어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갖은 고난을 몸소 받으시고 십자가 상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당신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인간에게도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도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 인류를 위한 희망과 기쁨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부활의 축일을 지내는 우리는 이 희망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공로는 허사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신자여러분!

우리 모두 즐거운 부활 대축일을 기뻐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우리들은 죄를 물리치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탐욕과 이기심과 거짓과 사악한 생각 등,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 신자들입니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평화와 순결한 마음의 기쁨이 자리잡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정들을 감싸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죄와 모든 악을 처이기는 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마음과 가정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온 세계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업을 이룩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이상생활을 영위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창조주의 사랑으로 조성되었고 보존되는 것이며 죄의 노예상태에 떨어졌지만 십자가에 못박히시

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자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변형되어 언젠가 마침내 완성될" (사목헌장 2항)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현실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신자여러분!

지금 뜻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회현실에 대하여 걱정하는 말씀을 합니다. 즉, 불안하고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려되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것 같습니다. 또, 예수부활의 빛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 사회에는 아직 너무 많은 어둠이 깔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만을 간주해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인간생명에 대한 경의심의 부족을 위시해서 친부적인 인권의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있으며 윤리도덕의 퇴폐와 가치관의 전도가 그를 뒤따르고, 진실성의 결여와 불신풍조가 만연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견해를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동안 많은 경제성장을 해왔고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과 발전들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과 같이 인간사회의 기본가치인 진실과 사랑, 인권과 자유, 진정한 윤리도덕의 튼튼한 기반 위에 서있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현실은 모든 국민들이 매우 마음아프게 느끼고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북분단의 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 오히려 여·야 정치인들은 그걸 몰르는 정치적 극한 투쟁만을 계속함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안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정치체제가 비민주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그걸 줄을 모릅니다. 오늘날 극심해지고 있는 개헌투쟁은 바로 그 단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제체제의 부조리는 대다수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비통한 아우성을 지르게 하고 있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하여 학문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은 이상적 민주주의를 갈구하며 그 순진한 정열을 불태우는 반면, 대부분 같은 젊은 군경들은 거기에 대항하여 완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현실은 참으로 이 나라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눈을 뜨고 함께 걱정해야 합니다.

(2면에 계속)

<1면에서 계속>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깊이 통찰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과감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예수께서 부여해주신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예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으며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기본적인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권, 정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에는 혼란과 대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약에 대한 징계와 악을 추방하기 위한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친애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 빛을” 크게 비출것을 다짐하고 노력하였지만 아직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한번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 들고 전진할 것을 새롭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정의와 자유가 쫓기고 모든 사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사회건설의 역군이 될것을 다짐해야겠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나 방관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신자인 우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오늘과 같이 사회현실이 어지러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 자신과 가정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는 자기가 처해있는 위치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자기 직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올바른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의 의무는 「현대 세계의 사무현장」과 기타 많은 교회문헌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교회법전(225조)에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마태 5, 13~14)이라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정치인이기에 앞서 그리스도 신자여야 하고, 기업인이기에 앞서 그리스도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 신자인 관공리와 군인 그리스도 신자인 노동자, 학생,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위에서 언급한 교회의 가르침을 모르거나 도외시 하면서 정치인 행세를 하거나 상공인, 농·공자, 학생, 시민의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양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 타이르시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 “낡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다시 순수한 반죽이 되어”(1고린5, 7) 우리나라를 깨끗하고 평화넘치는 나라로 만드는 데 역군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새봄과 함께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도 예수부활의 기쁨과 정의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만강의 축복을 빕니다. 1986년 예수부활 대축일에



무정란의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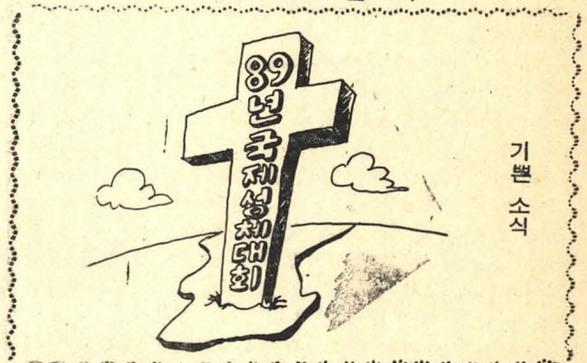
또 부활절의 아침이 밝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저분하고 응졸한 나의 구태의연한 삶과, 우리의 슬픔을 조이는 제도적인 구조악이 판을 치는 현재 질서에 부활은 어떠한 의미를 제시하는가? 부활절은 그냥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불과한, 어제가 아닌 오늘일 뿐인가?

그래도 금년 부활절에 우리는 이 시대의 부활사건을 보았다. 필리핀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마르코스의 부정하고 부패한 독재의 사슬이 깨진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쩌면 필리핀의 부활사건이 전개되었을 때, 우리는 신문읽는 기쁨에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뒤안길에는 죽음을 각오한 진리의 방승(라디오 베리따스), 남프렐(자유선거를 위한 전국 시민운동), 반정부군, 하이메 신 추기경, 투포함을 지키고 탱크를 막은 사제와 수도자들,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선 시민들의 십자가가 있었다. 그래서 필리핀의 무덤은 깨지고 부활의 알렐루야가 울려 퍼졌다. 이에 우리나라의 많은 선의의 시민은 동경과 박수를 보냈고, 일부에서는 그쪽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는 다르다고 말하기도 한다.

가톨릭은 오랜 관습으로 부활절에 달걀을 선물하고 나누어 먹는다. 그것은 계란이 마치 봄을 기다리는 겨울처럼, 껍질 안에서 숨쉬는 생명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는 양계장에서 무정란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부활달걀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무정란들인지도 모른다. 빛이 번쩍거리더라는 신문 만화의 문구에서나 감을 잡고 사는 우리의 부활절은 언제인가! 주여, 무정란도 부활할 수 있겠나이까?

숲 정 이 산책



기쁜 소식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오로 서원 옆

☎ 72-5770

김홍균(베드로)

웨딩드레스·
약혼복 드레스 대여

금수 웨딩드레스 금수 미용실

신부화장·파마·맛사지·부케
신부야외촬영·비디오촬영
(신자분은 특별 할인함)

전주시 경원동 관동로변
민정회관과 소서빌딩 사이

☎ 2-8507

주. 박영숙(유리아)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의사 황수경
산부인과전문의를 황수경

이승렬(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서울신락은행건너편 골목



교 구 소 식

축! 예수부활 대축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 ☆ 축! 겐진: 상관천주교회 4월 6일, 주례-박정일 주교
 - 1. 사제평의회: 4월 1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 2. 부활 특집방송 (MBC TV 일요초대석): 30일 오전 7시
초대-김진소 신부, 내용-부활과 순교 신앙
 - 3.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4월 3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덕진천주교회
초대강사-이수현 신부님·김낙완 선생님, 준비물-미사준비·도시락(회비 없음)
 - 4. 전주교구 교리교사 하계 교리교재 편집위원 임시모임: 4월 5일 오후 3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 각지구 편집위원은 빠짐없이 참석 바람
 - 5. 학생 임원연수회: 5일 오후 2시~6일까지, 장소-가톨릭센터
대상-각 본당 임원 및 각 단체 임원
 - 6. 제1지구 A지역 사목역수회: (중앙·고산·금암·덕진·동산·삼배·순정이)
일자-6일 오후 2시~6시, 장소-가톨릭센터
참석범위-성직자·수도자·평신도 사목회 분과위원장 이상
 - 7. 제6기 혼인강좌: 7일~11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수강료-3천원
접수-4월 3일까지 교육국(☎0041)
 - 8. 성빈첸시오 아·빠울로 이사회 월례회의: 12일 오후 2시
장소-사회복지회관, 안전-월말보고 및 단합대회(5월 4일) 준비
 - 9. 전주교구 수녀연합회 월례모임 연기: 제48차 월례회가 4월 2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10. 7주성령세미나: 4월 5일~5월 17일(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참가비-3천원, 이터 창인동본당
 - 11. 성모기사회 피정: 일시-4월 5일(토) 9시 30분, 장소-전주 효자동천주교회
지참물-미사도구·점심도시락, 회비-없음
※ 당일 성 팔배 신부님 영화(칼라) 상영함
- ※ 순창천주교회 전화번호 변경안내: 사제관 2-2234, 수녀원 2-3135, 30일부터 변경
영등동천주교회 전화번호 변경안내: 사제관 54-2202, 사무실 52-2240

※ 가정기도 독서: 이사야 58:6~9 복음: 루가 19:41~44

잡 관!

읽어 봤는가?

금번 교구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추기경님의 메시지와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대대적으로 인쇄, 각 본당에 보급한바 있다.

읽어봤는가? 아니 그런 것도 있었는가? 하고 고개만 가웃겨려지지 않는지-세상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교회 장상의 가르침을 소홀히 할 때, 현란한 T.V를 보며 눈은 멀어있고 왜곡·편중보도만을 일삼는 신문을 보며 사고가 굳어버린 이 시대의 방황에 우리마저 휩쓸리고 말것이다.

관심을 갖자.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이 시대 이 사회에 참된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자. 주님 부활을 맞은 오늘, 역시 주교님의 부활메시지가 발표됐다. 정의와 평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우리 시대에 신앙의 빛으로 일깨움을 주는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받아드리고 실천하자.

- *후수(회장)웃감 | 도
- *특수 파티복 | 매
- *고급 침구류 | 상
- *각종 솜 일체 |
- *커네티지 |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부동산 투자 상담 (토지, 임야, 상가, 주택, APT 등)

- * 컴퓨터 정보처리(전북 최초)
- * 2,000만원 영영보통예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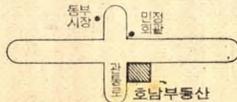
호남부동산 중개 유한회사

오 재 천 (안드레아)

(원평성당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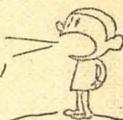
전주 ☎ 75-0247

(관동로 민정회관 옆 2층)



요심이 (660) 김병오

국방위협식
사전에 알고
싶은 것이 있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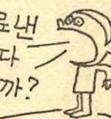
술버릇이 고약한
어른이 몇명이나
되니까?



회식비는 참석자가
호주머니를 털어
부담했습니까?



국민이 세금으로 낸
예산으로 마시다
치고 받았습니까?



신앙대학 학생모집

1. 수료기간: 1년 2학기
2. 수업일시: 매주 화·수요일
7시~9시30분
3. 과목: 성서입문, 교리해설,
기초신학, 윤리신학, 교리
교수법, 그리스도론, 교회
론, 성사총론, 영성신학
4. 접수 및 문의: 4월 8일까지
교육국(☎0041~3)
5. 정원: 80명
6. 수강료: 월 15,000원
(학기당 45,000원)

삼가 올립니다

이번 계 어머니님 환영
수(요안나)의 갑작스런
별세에 당황하고 있는
저를 많은 기도로 위로
와 슬픔을 함께 하여 주
신 여러분께 마음을 다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도속에서 기억
하겠습니다.

김진소 신부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콘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1. 축! 예수 부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 영세하신 형제 자매님들께 축하드립니다
2. 5개공소 활동미사: 오늘 오후 3시, 다리를 공소에서 각 공소의 교우님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토기 저금통 봉헌: 다음주에 봉헌합니다 신학생 양성을 위한 우리들의 정성을 빠짐없이 봉헌합니다
4. 설체 강복: 3일 아버지 미사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5. 예수 성심회 월례회: 1일 어머니 미사후
6. 본당 올드레아: 3일 저녁 미사후 본당내의 꾸르실리스타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7. 공소 순회미사: 4월5일 저녁 8시, 신교리 공소
8. 노송신협 장학생 선발: 선발인원 0명 자격-노송신협조합원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전체 성적 50% 이내인 자) ※단 공무원 자녀는 제외합 접수 마감일-4월8일 까지
9. 금주의 전례담당: 해설-전병주 독서-기도-봉헌-새로 영세하신 분들
10. 감사: 부활 준비에 협조하신 분들께
□ 지난주 봉헌금: 602,295원 교무금: 1,561,000원 신축금: 352,2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축! 부활: 주님의 은총이 가정에 충만하시길 빕니다-본당신부
2. 감사: 부활절 행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께
3. 축! 영세: 성인 16명, 축하 드립니다-신자일동
4. 감사합니다: 부활 꽃 봉헌하신분 및 단체
5. 저금통: 다음주일 미사에 봉헌합니다
6. 부활 계란: 학생회에서 판매합니다
7. 대학생 모임: 오늘 오후 5시
8. 첫 월례: 4월5일 저녁 7시30분, 미사후 성체강복
9.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 7시30분
10. 금주 성당청소 월-사도의 모후 pr, 토-자비의 모후 pr 차주 성당청소 월-평화의 모후 pr, 토-구세주의 모친 pr
11.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천진 ②조성호 봉헌-최창기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강기연 ②황갑순 봉헌-이병현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95,150원 교무금: 941,670원 특별헌금: 127,840원

(삼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사목회장 이 정 우

- ☆ 축!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1. 행사안내: 미사후 축하대회및 운동경기, 농악합니다 즐거운 부활절을 보냅니다(점심식사 준비 되었음)
2. 청년회 임원 개편: 회장-여정진, 부회장-안현주, 총무-문병주 ※ 주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사목·구역장 회의: 4월4일 저녁 미사후
4. 금주전례: (성가) 입 당-가톨릭성가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복음전-가톨릭성가 429 알렐루야 봉 헌-가톨릭성가 214 주께 드리네 212 너그러운 받으소서 154 주여 어서오소서 성 제-가톨릭성가 151 주여 임하소서 152 오 지극한 신이여 퇴 장-가톨릭성가 130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해설-이우동, 독서-유순천·이우동 봉헌-강덕용 회장 부부

- 5. 다음주일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매월 첫주일
6. 치과진료: 공식 미사후 있습니다
7. 공로패 수여: 외어두 구역회장님 최용선
8. 견진성사: 다음주일(4월6일) 공식미사 4월2일 저녁 미사후 견진교리 있습니다
9. 남성 레지오: 매주 화요일 저녁 미사후 시험 답안지 가져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126,350원 교무금: 200,000원 인성회 헌금: 51,8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제2성당 주일미사: 오전 9시30분, 오후 2시
2. 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오후 2시
3. 자모회 모임: 1일 오전 10시30분
4. 사목회 모임: 3일 오후 8시
5. 예비자 교리: 일반-일요일공식미사후 학생-토요일 오후 6시, 어린이-토요일 오후 3시
6. 부활절까지 교무금 수입을 마칩시다
7. 감사합니다: 대리석 촛대 2개(최가브리엘라), 제대보(익명), 제2성당 부활초·제대꽃(익명), 본당 부활제대꽃(익명)을 기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 오늘 봉헌: 박형식 부부 차주봉헌: 김한기 부부
9.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김배근, 독서-①차상열 ②최창람 공식미사: 해설-고복근·김은경 독서-①함문권 ②신영창 저녁미사: 해설-진경선, 독서-①강경화 ②김정민
□ 지난주 봉헌금: 392,160원 교무금: 456,000원 미수금: 128,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오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 ※ 영세자 환영식: 오늘 공식 미사후-소강당
1. 사목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2.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 1시30분
3.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순절 9일 기구, 전신자 1일 피정
4. 감사: 성심상 주변 나무심기에 협조해 주신 분께 서정열, 홍정순, 신일균, 윤귀자, 이종두, 대진신협
5. 병자성사: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6. 다음주 봉헌담당: 정진훈 부부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최종만,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석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신일균 ②장금태
□ 지난주 봉헌금: 930,900원 교무금: 1,604,500원 특별헌금: 308,83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축! 부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신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사목위원 일동
2. 성당 앰프 시설·지하성당 장래를 모든 신자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3. 성모 기사회 피정: 4월5일 오전 10시부터
4. 주부 성서 대학: 4월2일 오전 10시-에베소서
5. 꾸리아: 다음주일
□ 지난주 봉헌금: 532,120원 교무금: 1,450,500원